

ACAE 건축교육위원회 연례회의 및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를 보고나서



ACAE가 추구하는 것이 건축과 학생의 교육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협회의 주 기능과 조직구성은 그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田鳳秀/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by Jeon, Bong - Soo

1. 처음에

아카시아 건축교육 위원회(ACAE,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는 매년 연례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는 아카시아 이사회(Council Meeting)가 개최 되는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 지는데 금번은 4 차 회의로 1990. 10. 1 인도의 아그라(Agra)에서 있었다.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대회(Asian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는 격년제로 아카시아 총회(Congress)와 함께 개최된다. 금번은 3차 대회로 인도의 델리(Delhi)에서 1990. 9. 26부터 9. 28일까지 있었다.

ACAE가 추구하는 것이 건축과 학생의 교육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협회의 주 기능과 조직구성은 그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카시아 가입후 얼마간은 본 협회 연수

위원회에서 대 ACAE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나 연수위원회의 본래의 역할과 거리가 있었다. 1990년부터 국제 위원회 내에서 전담 위원을 두어 임시 방편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학교육에 관한 본협회의 목표설정등과 함께 추후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제4차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연례 회의

회의는 1990. 10. 1 아그라시 타지뷰(Taj View) 호텔 2층홀에서 개최되었다. 예의 절차에 따라 ACAE 회장인 인도 나그푸르공대(Nagpur, India) 학장 데쉬판데씨(S.A. Deshpande)의 환영사 및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 및 참관인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중국, 홍콩,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8개국에서 참석함으로써 정족 회원국 수 6개국을 약간 상회하여 성원이 선포되었다.

토의주체에 관한 질의가 있는 다음 1989년 태국의 방콕연례회의시 작성된 회의록을 약간의 문구조정과 오자등을 수정한 후 승인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토론된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지역 대학교 현황 자료집 작성
- 각국 건축과 학생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건축도서 정보센터(ICAAP) 운영
- 아시아내 3개지역의 활동상황
- ACAE 회지 발간
-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전기대회 결산 및 참석 학생과의 대화
- 차기 회장단 및 간사국 선거
- 차기 회의지 결정

위 각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부언하면,

1)“아시아 지역 대학교 현황(건축과가 있는)에 관한 자료집 작성”은 1988년부터 홍콩 건축사 협회(HKIA)가 주축이 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아시아지역 대학의 30~40% 정도 자료가 수집되었고(한국은 6개 대학의 자료제공)정리 분석하는 것은 착수도 안한 상태였다. HKIA는 한 회원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큰 무리라고 하소연하였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함께하였다. 자료집 작성 전담기구를 만들어 각국간의 통신 및 비용 염

아시아 건축설계
시장진출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측면, 입장에
따라 관심 밖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아시아
진출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건축 설계 분야이므로 아시아
지역의 정보없어도 설계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대화에
꾸준히 참석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는 축적된다고
믿는다.

출등의 해결방안에 묘책이 없었다. ACAE 회장 자신도 자료집 작성의 목적과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취소하자는 각국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더이상 작업을 확대시키지 않고 현재의 자료만으로 마무리하면서 더 연구하자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2) “아카시아 회원국의 건축과 학생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은 1989년 방콕회의서 인도 건축사협회 (IIA) 가 6가지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각 회원국에게 연구의뢰 되었으나 회원국간 의견이 있고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회원국도 없었다. 계속적인 연구과제로 두기로 하였다.

3) 1986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아시아 건축도서정보센터(ICAAP, Information Center for Asian Architectural Publication)”의 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나 이미 아카시아의 소관업무로 이관된 상태 이어서 더이상의 토론이 없었다.

4) 아시아를 남아시아 지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지역(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동아시아지역(한국, 중국, 홍콩, 일본)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간사국을 순차로 임명하고 간사국이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금번 회의시 남아시아 지역(간사국, 파키스탄)은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보고 내용이 없다고 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간사국, 싱가포르, SIA) 및 동아시아 지역(간사국, 홍콩, HKIA)도 특별한 내용없이 의례적인 사항만 보고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간사국인 HKIA의 경우는 영국과 중국간의 조차 만료기한인 1997년 6월 이후의 회원국 자격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기간중 의기소침한 상태로 일관하였다.

5) ACAE 회원국간 정보교환등을 목적으로 “회지 발간”이 제안되어 “ACAE REVIEW”라는 제호를 채택하였고 이사회의 발간승인을 요청기로 하였다.

6)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전기대회 결산 및 참석 학생과의 대화.” 1986년 팔라렘푸르에서의 제1차대회 보고서가 당일 접수되었다. 그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여 추후대회의 보고서 작성시 기초자료로 채택하였다.

1988년 서울대회의 대회보고서도 금년 6월경 제출되었으나 회의개최 전에 내용이 다소 개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긴 내용의 보충 설명을 하였다. 설명은 본 협회가 사전에 작성 배포한 내용을 필자가 읽는 형식을 취하였고 정식 보고서로 채택 되었다.

3차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학생과의 대담은 주최측의 무계획성인 대회진행으로 학생의 참석에 차질이 생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초 본 협회는 연세대 4학년 이소진 학생이 1988년 서울대회와 금번대회를 모두 참석한 바 있으므로 양대회의 특징에 관한 이양의 경험을 피력하게 하고, 잼버리 대회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7) 차기(1990-1992)회장단과 3지역 간사국이 다음과 같이 선임되었다.

회 장	말레이시아(PAM)	카 씨
(P. Kasi)		
총 무	말레이시아(PAM)	추 후
결 정		
간 사 국	남아시아	
	방글라데시(IAB)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IAI)	
	동아시아	
	한국(KIRA)	

본 협회가 동아시아지역의 간사국이 되었으므로 금후 중국, 홍콩 및 일본(차기대회시 회원국 입회 신청예정)등과 긴밀한 연락업무를 맡게 되었다.

8) 제5차 연례회의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기로 되었다.

3. 제3차 아시아 건축학생 잼버리 대회 (3rd Asian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대회 참석 대학생의 선발은 당초 학생작품 설계경기에 응모한 학생중 우수 작품을 낸 학생을 선발기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각대학에서 추천된 20여명의 학생을 서류 및 면접 전형에 의하였다. 영문 자기소개서, 평소설계작품, 건축지식, 영어 구사력 및 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는데 심사위원(국제 위원회 위원 및 영어 테스트 전문 외국인)의 거의 일치된 견해로 연세대 4년 이소진양과 서울대 3년 남수현군이 선발

되어 이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기간중 인도는 북부 전역의 학생시위로 운동 어수선했다. 매일같이 수명에서 십수명씩 항의 분신 자살하거나 시위진압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많은 도시에 통행금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시위의 진원은 인도 정부가 지난 8월 입안한 교육 및 취업정책에 대한 반발과 지지에서이다. 쿼타(Quota)라든가 리서베이션(Reservation)이니 하여 인도 특유의 카스트제도에 따른 하류계층의 국민에게만 일정 비율의 교육 및 취업을 추가 보장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국민, 특히 학생층의 저항이 큰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의 지지촉구시위도 만만치 않았다. 인도의 일간지 인디아 타임지의 1면 머리기사는 9월 27일자 “전북부지방에 걸쳐 쿼타제 반대시위 확산 일로”. 9월28일자 “계속된 시위속 15명 사망”, 9월29일자 “진정안되는 소요속에 10명 피살”등으로 장식되는 등 살벌하고 어수선했다.

“인구 8억3천5백만명의 47%가 문맹이고 40~50%가 절대빈민인 상황에서 애매한 기준의 하류층에게만 27%의 추가 쿼타는 말도 안된다.”는 인도의 한 젊은 건축사의 푸념에 인도 사회의 문제점을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매우 심각함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불안으로 대학내에서도 학생의 의견이 첨예화하여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등과 같은 사치(?)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원만한 대회준비와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당초부터 무리였다.

예측대로(?) 주최국 인도건축사협회(IIA)는 잼버리 대회준비는 엉망이었다. 개최장소는 인도 YMCA 회관. 무계획한 대회진행, 거둬진 시행착오, 지도교수의 무성의, 남아시아 어느나라의 비등록 학생 다수의 억지참가로 인한 혼란, ACAE 측과의 상호 협조 부족, 각 대표단의 참관을 막는 등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상태 속에 막을 내렸다. 참석 학생들의 불만은 높았고 이사회 각국 대표의 항의도 잦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석학생의 참가기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중언치 않고자 한다. 다만 차후의 원만한 대회를 위하여 무성의한 대회진행에 대한 항의서한을 적당한 경로로 전달할 예정이다.

4. 끝으로

필자는 1988년 서울 연례 회의시, 본 협회 연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연례회의의 총무로서 전임 ACAE 회장을 보좌한 바 있었고 금번 아그라회의에는, 국제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하는 등 두번의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갖는 행운이었다. 두 차례의 대회에 참가하며 가진 몇가지 소감을 피력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분명 대학교육은 대학과 문교당국의 소관이다. 그런데 직업 교육면에서의 본 협

대회기간중 인도는 북부 전역의 학생시위로 운동 어수선했다. 매일같이 수명에서 십수명씩 항의 분신 자살하거나 시위진압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많은 도시에 통행금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타단체인 대한건축학회는 이에 비해 상대적인 적극성이 있음은 구성원의 차이에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본 협회도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ACAE 등과 같은 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수한 설계자와 건축사 탄생의 모태가 대학교육이라는 원론적인 점에에서이다. 여러회원과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아시아 건축설계 시장진출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측면. 입장에 따라 관심 밖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아시아 진출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건축 설계 분야이므로 아시아 지역의 정보없어도 설계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대회에 꾸준히 참석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는 축척된다고 믿는다. 일본의 경우는 정식 회원국도 아니면서 참관인, 발표자 또는 패널리스트 등으로 대회 참석하는 열의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오늘이 특유의 수집벽에서 비롯되었다는 진단도 있다.

셋째, 국제회의의 감각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국내에서도 웬만한 격식을 갖춘 회의에도 매우 어색해하는 필자와 같은 소양으로는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실 국제회의꾼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세련된 언행과 소양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닐지. 앞으로 이러한 소양을 가진 각층 세대의 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